

김광아 회장, 광주시양궁협회장 5선 연임 성공

“최강 광주 양궁...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남녀 초·중·고·대학·실업팀,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자부”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4년 더 광주시양궁협회를 이끈다.

광주시양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12일 끝난 제9대 광주시양궁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입후보한 김 회장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한 뒤 당선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광주시양궁협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이로써 5선 연임을 하게 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오며 광주만의 탄탄한 연계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 양궁은 전국 최강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기보배·최미선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고, 전국체육대회 양궁 종목 종합우승 4회, 조우승 3회, 3위 2회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회장은 ‘양궁은 엘리트 스포츠’라는 틀을 과감히 깨고 광주다운 스포츠클럽, 광주거점스포츠클럽, 광주여대양궁클럽 및 광주국제양궁장에 시민을 위한 무료 상설 체험학습장을 운영, 양궁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광주국제양궁장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고 권위의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를

비롯해 매년 4개 대회 이상의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국내 첫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도 성공했다. 나아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도 희망적이다.

김 회장 취임 이후 광주국제양궁장은 국내·외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선수단은 물론 중국·일본·프랑스 국가대표팀과 해외 실업팀이 광주를 찾아 스포츠 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김 회장 체제에서 광주시양궁협회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며 체육계 모범 단체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회장은 2012년, 2019년 대한체육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회장은 “광주 양궁의 마지막 숙원사업인 남자 실업팀 창단이 남구청의 지원으로 가시화됐다. 이제 광주 양궁은 남녀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틀을 다졌다”며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광주 양궁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여성 최고경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영자(CEO)인 남진건(㈜ 대표이사)로 ‘여성기업인 명예의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으며, 현재 민선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광주여대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에 합류한 김봉진(왼쪽)과 이준용이 올 시즌 각오를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2부 무대 활약 김봉진 영입

2019 화성FC FA컵 4강 신화 기여한 FW 이준용도 합류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친 김봉진을 영입했다.

광주는 14일 “강원, 경남, 홍콩, 베트남 등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봉진(30)과 2019년 화성FC의 FA컵 4강 신화에 기여한 미드필더 이준용(25)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봉진은 탄탄한 대인 마크와 안정적인 볼 처리, 공중볼에 강점을 보이는 중앙 수비수다. 빠른 스피드와 함께 패스, 빌드업에 능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하다.

2013년 강원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한 김봉진은 시즌 중반 부임한 김호영 감독 체제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며 13경기(2골 1도움)를 소화했다.

이후 인천과 경남(K리그 20경기)을 거쳐 2016년 홍콩 1부리그 킷치SC에 입단해 세 시즌간 리그와 각종 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휩쓸었고, 2년 연속(2016-2017) 시즌 베스트11과 올해의 수비

수를 수상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2019년 호앙아인 잘라이(베트남 1부)에서도 리그 베스트11 선정이라는 기업을 토했으며 지난해엔 말레이시아 1부리그 PJ시티에서 활약했다.

이준용은 스피드와 1대1 돌파, 저돌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측면 공격수다. 2017년 춘천시민축구단을 거쳐 이듬해 화성FC에 입단한 이준용은 세 시즌간 팀의 리그 우승, K3리그 ADVANCED 챔피언십 우승 등을 함께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화성FC가 K3리그 구단 최초로 일궈낸 하나은행 FA컵 4강 신화에 기여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광주 관계자는 “아시아 무대, ACL 등에서 활약한 김봉진의 노련함과 하위리그에서부터 확실히 일지를 다져온 이준용의 합류는 팀 공격과 수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손흥민 ‘골대 불운+상대 골키퍼 선방’...리그 13호골 ‘다음 기회로’

토트넘, 강등권 풀럼과 1대1 ‘리그 6위’



14일 열린 EPL 16라운드 토트넘과 리그 18위 풀럼과의 경기. 후반 26분 토트넘 손흥민의 원발 슈트가 상대 골문을 맞고 나오고 있다. ‘토트넘 100호골’과 ‘유럽 무대 150호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이날 두 차례 결정적인 득점 시도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골대를 때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난 2일 리그 유나이티드전 득점 이후 정규리그 2경기 연속골 사냥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이날 케인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내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 리그 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AP=연합뉴스

‘불법 베팅’ 정현욱, 경찰 자진출석

협박 선수도 KBO에 보고

불법으로 스포츠도전에 베팅한 프로 야구 두산 베어스의 투수 정현욱(22)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정현욱은 14일 오전 두산 관계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본격적으로 수사 기관이 현역 선수의 베팅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정현욱을 조사한다.

두산은 13일 “KBO에 스포츠도전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의 자격정지 선수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권기영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논란을 부른 ‘방출 선수’도 있다.

정현욱은 구단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A선수가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욱과 입단 동기인 A선수는 이번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방출당했고, 현재 군 복무 중이다.

두산 관계자는 “방출된 A선수의 스포츠 도박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

당 선수가 복무 중이어서 직접 물을 수도 없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정현욱과 권기영처럼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 KBO 보고서에는 A선수 관련 의혹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두산과 KBO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현역 선수의 스포츠도 베팅은 무척 예민한 문제다.

정현욱이 승부 조작 유혹에는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승부조작 사건으로 휘청였던 프로야구는 스포츠 도박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단 KBO는 두 선수의 선수자격을 정지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선수들이 시인했고, 두산 구단도 자체 조사 결과를 KBO에 전했다. 그러나 금전적인 대부 문제 등 더 살필 문제도 있다”며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건, KBO와 구단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상벌위원회 개최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IA타이거즈, 국내 스프링캠프 준비 ‘착착’

프로야구 2021시즌을 준비하는 10개 구단이 내달 1일부터 ‘국내 동계 훈련’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0개 구단은 해마다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차리던 스프링캠프를 올해엔 국내 훈련으로 대체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도 광주와 함평에서 개최할 스프링캠프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IA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KIA 챔피언스 필드(함평) 볼펜과 보조구장, 실내연습장에 시공 중인 방풍 및 방한 시설 설치 공사가 이달 말께 완료된다.

내달 1일부터 광주와 함평으로 나뉜 스프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인 KIA는

이달 말 챔스 필드·챌린저스 필드 방풍·방한 시설 설치 완료 마운드 흙교체 등 경기력 향상 초점, 내달 1일부터 훈련 돌입

추위는 물론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공사를 벌였다.

우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좌우 외야 끝에 위치한 볼펜 2곳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천막을 덮어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 폭설이나 강풍에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진 볼펜 내부에는 난방기기와 조명을 설치해 실내 훈련에 지장 없도록 했다.

볼펜 1곳 당 투수 2명이 동시에 투구할 수 있고, 실내연습장 마운드 2곳까지만 합치면 동시에 6명의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퓨처스 선수단의 스프링캠프지인 KIA 챌린저스 필드 1.2구장 볼펜 4곳에도 방풍 시설을 설치했고, 보조구장 펜스 전체에 바람막이를 설치해 추위를 대비했다.

챌린저스 필드 볼펜은 1곳 당 투수 3명이 동시에 투구할 수 있어, 1.2구장을 합치면 동시에 12명의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있다.

이와 함께 KIA는 광주와 함평 구장의 마운드 흙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인필드 믹스’와 ‘마운드 클

레이’로 교체했다. 그라운드와 마운드 뿐 아니라, 볼펜의 흙도 모두 새로 깔았다.

‘인필드 믹스’와 ‘마운드 클레이’는 기존 마운드의 흙보다 단단해 투수들이 투구할 때 디딤발의 밀림 현상을 저하시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KIA 관계자는 “광주와 함평 지역의 2-3월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선수들이 야외에서 훈련하기에는 춥기 때문에 최대한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투수들의 요청에 따라 마운드 흙도 교체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희중 기자



방한, 방풍 시설을 갖춘 실내 시설로 변모한 챔피언스 필드 볼펜.

〈KIA 타이거즈 제공〉